

(치사)

결실이 현시대의 대안으로 스며들기를

자승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僧伽 제28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인스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동문 스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시대에 맞추어 연구하고, 사회에 어떻게 회향할 지를 학문적으로 점검하는 의미는 각별하다 할 것입니다.

중앙승가대학의 연구 결실은 앞서간 스님의 원력을 잊지 않는 끊임없는 열의였기에 이미 불교학의 든든한 거목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명실공히 종단 불교학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높은 학력과 전문지식에 기반한 현 사회는 막연한 의지와 기대를 넘어, 정신의 지도자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현실에 부응하여 전통과 현대학문을 접목한 수많은 연구의 축적은, 불교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기에 종도들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28회의 전통은 발원의 씨앗과 회향의 결실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역량을 뜻하기에, 새로운 도전과 후학의 첫걸음을 훌륭하게 안내하는 동시에, 그간의 연구 성과와 업적이 종단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회향의 미덕 또한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僧伽’ 편찬의 각별함 속에서, 승가대학교는 인류의 행복 실현과 정신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그 역할의 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학문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이에 기인한 선지식 배출의 훌륭한 교

육 도량으로 더욱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교단을 수립한지 50년을 맞이한 해이며, 우리종단 제13대 종정예하를 추대한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하화중생의 가르침에 따라 종단은 사회와 역사가 요구하는 소명에 맞추어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僧伽 제28호’는 한국 불교의 의미있는 한해를 함께한 것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학문의 결실이 저절로 현 사회의 필요한 대안으로 스며들기를 바라며 교학수행의 장이자 중생교화의 방편을 담아내는 불서의 도량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발원합니다. 학인스님의 구도열의가 오늘을 헤쳐가는 지혜의 눈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